

# Poly Village

PolyMirae Magazine  
2021 Spring Vol.46



일었던 마음도 녹이는 따스한 봄의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3월,  
폴리미래의 희망찬 이야기들로 봄기운을 충전해보세요.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우리 모두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 PP의 한계를 뛰어넘는 Hifax EP246P



Hifax EP246P는 우수한 치수안전성으로 ABS 또는 PS를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Poly Village 2021 Spring Vol.46

## Poly & Business

- 04 CEO 메시지  
2021년 대표이사 신년사(新年辭)  
김방현 대표이사/사장
- 06 오늘 폴리미래  
안전은 지키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서  
공정팀 이길중 상무
- 08 현장 스케치  
희망찬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울산피피, 연간 40만 톤 PP 생산 기대  
울산피피 기획재무팀 김오네 매니저
- 10 Vol. 46 스페셜 에디션  
끝은 곧 새로운 시작! 인생은 지금부터  
은퇴 후의 삶 & 폴리미래의 추억 | 전 공정팀 위정환 부장  
우리들의 인생 길 | 전 생산1팀 이해범 과장
- 12 생활 속 폴리미래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고객만족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함께하는  
“(주)이지필립”  
내수영업팀 임채휘 대리
- 14 포커스  
글로벌 PP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폴리미래의 생존 전략  
시장개발팀 김학상 팀장
- 16 뉴스 브리핑
- 21 인사동정
- 22 특집  
업글인간 : 회사가 사용하는 사람에서, 회사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교육컨설팅회사 나우잉 제갈현열 대표

## Poly & People

- 26 폴리 인터뷰  
폴리미래의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입사원들 궁금하시죠
- 32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안전환경팀(HSE팀)

## Poly & Relax

- 36 힐링 메시지
- 38 라이프 트렌드  
재테크 초년생 작은 부자 되기 첫걸음 ‘이것’부터  
매일경제 기업팀 전종현 기자
- 40 언택트 여행  
그곳에서 모든 것은 섬이 된다 거제도(巨濟島)
- 44 퀴즈세상

## PolyMirae Magazine

폴리마을 통권 제46호 | 발행인 김방현 | 발행처 폴리미래주식회사 Poly Village Vol.46 | 2021 Spring | 발행일 2021년 3월 22일 | 기획 사보기획팀 |  
디자인 · 제작 에브리딩디자인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17층 | TEL (02)2167-8914

이 책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친애하는 폴리미래 비즈니스 파트너 및 임직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흰 소의 기운을 받아 새해에는 소망하셨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 폴리미래가 창립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던 반면 저희를 포함해서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폴리미래가 지난 20년간의 지속성장에 이어 힘찬 전진을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주주, 관계사, 고객 및 지역사회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임직원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안전/환경/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영업 및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시장 내 폴리미래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2021년은 세계적인 대규모 폴리프로필렌 증설로 인하여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욱 심화된 석유화학 산업 내 경쟁으로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속성장을 굳건히 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와 노력을 집중한 울산피피 주식회사가 40만 톤 규모의 신규 생산라인 가동을 예정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폴리미래는 외부 환경적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확실성, 즉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비전인 「뛰어난 성과, 역량 있는 인재,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아시아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모든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2021년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김방현  
대표이사/사장





# 안전을 지키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서



최근 폴리미래 모든 공장은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에서 A등급을 획득하고 공정안전관리(PSM) 운영에서는 최고 등급인 P등급을 수여받았습니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폴리미래가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는 오늘날까지 어떤 노력을 통해 지켜져 오고 있었으며, 우리 모두에게 있어 '안전' 그 이상의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정팀 \_ 이길중 상무

## 우리의 핵심가치인 '안전'을 입증하다

오늘날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글과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는 행동으로까지 실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모든 업무와 생활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키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현재의 김방현 사장님께서 당시 공장장님으로 재임했던 시기부터 지금의 윤기엽 공장장님에 이르기 까지 안전을 최우선 핵심전략 및 가치로 선정하고 이를 성취하며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과 투자를 해왔습니다. 많은 위험요소가 내재한 공장의 여러 작업에 대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키기도 하지도 말자는 슬로건 아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정과 계획에 밀려 작업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의 공장 가동도 용인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왔습니다. 더불어, 공장 대정정비 작업(TA WORK)과 가동정지 작업(SD WORK)의 종료 후 가동 전 점검(PSSR)은 물론이고, 공장 운전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관리팀의 감독하에 확인 점검하여 부주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위험 환경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모든 공장은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에 대해 A등급을 획득하고 공정안전관리(PSM) 운영에 대해서 최고 등급인 P등급을 수여 받아 내실 있는 안전문화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외부의 인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일귀낸 이 안전문화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한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위험을 야기시키는 근원을 찾아 이를 개선하는 것 만이 근본적인 솔루션

'우리는 왜 작업이 생기는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 '왜 조치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반문하여 던져보면 많은 부분의 장막이 걷어지고 해결방안이 보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작업 중에 발생합니다. 이런 작업 중 사고 빈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개선 활동은 안전사고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불안정한 작업, 불필요한 작업, 불인지 한 작업, 불만 있는 작업 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견하고 다양한 방법과 해결책으로 개선한다면 앞서 언급한 작업 발생 빈도를 낮추고, 비록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인지하고 함께 준비할 수 있기에 안전이 보장된 계획적인 작업이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운전과 품질 확보는 사고 발생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자로 지식의 토대 위에 경험적 수치를 더한 프로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린 소통으로 팀워크가 추진될 때 안정적인 운전이 실천되고 또한 좋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들이 실천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는 재생산, 재처리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통되지 않고 조치되지 않은 상황들은 불안정한 운전으로 이어져 다음 조 또는 그 다음 날의 운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의 빈도를 높이며 추가 업무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솔루션입니다.

폴리미래는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한계점을 경험하며 지속적인 재도약을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회사가 안전을 공고히 하지 못해 벌어지는 상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폴리미래는 어려울수록 이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결하며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 그 이상의 가치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 안전 그 이상의 가치를 돌아보며

안전 그 이상의 가치 첫 번째는 우리가 폴리프로필렌(PP)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과 보람입니다. 안전한 일터인 폴리미래에서 만들어진 PP 제품이 친환경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가 만드는 PP가 인류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의 필수적인 원료라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우리 생활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미래의 PP 제품이 있어 기초 의료 방호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심각한 상황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및 산업은 가장 안전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원료인 PP를 사용하는데 폴리미래의 고기능성 PP는 산업 변화의 모멘텀으로 작동하는 근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구환경 개선에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는 폴리미래에서 일하는 나의 행복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가족과 구성원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선도적 친환경 제품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 작지만 알차고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 모범이 되는 폴리미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폴리미래는 투명하고, 떳떳하며 누구에게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강소기업입니다. 우리가 그 폴리미래의 구성원이며, 그 안에서 일하고 운영하고(Operating) 있다는 자존감이 우리가 가진 행복 그 이상의 것입니다.

끝으로 폴리미래는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입니다. 폴리미래의 안전을 지키고, 지속적인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안전 그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의 자산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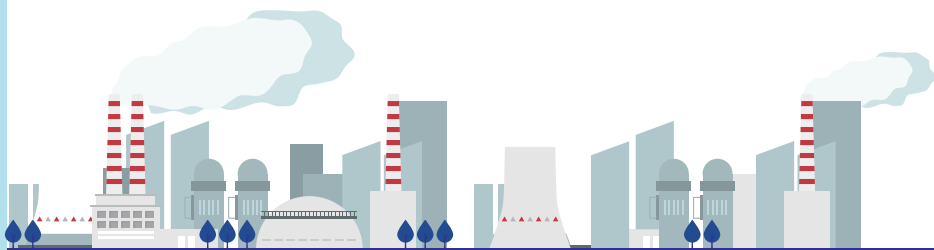


## 희망찬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울산피피, 연간 40만 톤 PP 생산 기대

울산피피는 폴리미래와 SK어드밴스드가 합작 투자하여 설립한 폴리프로필렌 제조회사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폴리미래와 SK어드밴스드간의 사업에 대한 MOU 체결 후 2018년 11월 1일 설립된 울산피피는 2019년 3월 울산 남구 황성동 신항 배후단지 일대에 약 5만 평 정도의 터를 잡고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기계적 준공을 목표로 시작한 울산피피 PP플랜트 건설공사는 예정보다 약 2달가량 공사 기간을 앞당기며 1월 11일부로 시공을 완료(Mechanical Completion)하였고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예정이었던 상업 생산 역시 3월로 앞당겨지면서 현장은 지금 설렘과 긴장감 속에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울산피피 기획재무팀 \_ 김오네 매니저



울산피피는 세계적인 수준의 PDH공장을 운영하는 SK어드밴스드로부터 프로필렌 원료를 공급받고, 초일류 PP 제조 기술과 마케팅 역량을 보유한 폴리미래로부터 제조노하우를 전수받아 연간 약 40만 톤 수준의 PP를 생산하여 폴리미래 및 라이온텔바젤, 대림의 판매망을 통해 국내외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울산피피는 조세프 호인키스(Joseph James Hoinkis) 사장 이하 약 70명 정도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광섭 공장장이 이끄는 생산팀, 기술팀, 물류팀, HSE팀이 공장 가동을 책임지고 있고, 우병재 실장을 포함 기획재무팀, 생산지원팀, HR팀이 지원 오퍼레이션(Operation)을 담당하며, Best Operated, Most Valued PP Manufacturing Company 라는 회사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재들이 제때 입고되지 못하거나, 해외 수퍼바이저들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 주주사의 전폭적인 지원과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예상보다도 더 일찍 안전하게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적 PP 설비 신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의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하기에 울산피피는 더욱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Goal ZERO 2021'이라는 새해 목표를 세우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위해 구성원 모두는 One Team, One Mind로 One Goal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울산피피의 새로운 시작에 많은 응원과 기대 바랍니다.





# 끝은 곧 새로운 시작! 인생은 지금부터

지난 세월 폴리미래와 동고동락하며 열정을 불태우고 정년퇴임한 두 명의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폴리미래에서의 열정적인 삶의 발자취를 밀거름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희망 가득한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힘차게 다음 스텝을 밟는 퇴임자 위정환 부장님, 이해범 과장님! 앞으로의 여정을 폴리미래 후배들 모두가 함께 응원합니다.



## 은퇴 후의 삶 & 폴리미래의 추억

전 공정팀 \_ 위정환 부장

### 폴리미래를 떠난 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간의 흐름은 멈춤이 없어, 폴리미래를 떠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에서 벗어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동안 마음속에만 묻어 두었던 삶의 우선순위를 꺼내 몰두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잠시였습니다. 30여 년 생을 몸담아 왔던 일터에서 맺은 인연들의 갑작스런 부름에, 국내외에서 다시 분주하게 지식을 쌓아가며, 옛길을 거울삼아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배움의 길은 그 끝을 알 수 없어 한 생의 길이라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 폴리미래에서 있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우리 폴리미래가 출발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 동료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생애 처음으로 겪었던 IMF라는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의 일환인 구조조정으로부터 지금의 삶의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정년까지의 추억은 20여 권의 회사 수첩에 그 열개가 기록되어 있지만,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까지 기억에 남는 건 어려울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토론하면서 모든 일을 제시간에 맞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의 노력과 헌신입니다. 공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노력한 시간 그리고 폴리미래와 함께 사회에 기여한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그 값진 경험과 시간들은 내일의 삶에 힘을 실어 주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새로운 목표나 경험하고 싶은 일 등)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며 다양한 도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비록 도전의 과정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반복될지라도 내재된 잠재력의 최대치를 활용하여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냄으로써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육체와 정신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관리해야 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 펼쳐질 삶에서 제가 필요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폴리미래가 사회에 많은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폴리미래의 건승과 함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나도 모르게, 어느새 다가와 있는 퇴직이라는 마음의 시간!

직장생활에서는 "멈춤"이라는 예고가 마침내 현실이 된다. 돌아보면, 주름지고 반백이 된 머리가 지난 세월의 흔적을 느끼면서, 퇴직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서 '내일도 출근해야지' 했던 하루하루가 순식간에 그 끝에 온 것이다.

어떤 가수가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라고 노래했다고 한다. '행복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거나 일할 때이다'는 말처럼, 퇴직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지도 못한 채 항상 젊은 줄 알고, 일하며 행복에 젖어있을 후배들께 퇴직이라는 무겁고 반갑지 않은 이야기를 던지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지만, 이 또한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의 현실인 것을 어찌랴.....



## 우리들의 인생 길

전 생산팀 \_ 이해범 과장

### 아무 준비 없이 퇴직이라는 절벽에 맞서게 된 나의 2007년!

"나" 보다는 "우리"를 염두에 두고 근무해왔던 시간이 후회되고, 무엇인가 허무하고, 어딘가 가야하고, 무엇인가 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발걸음이 옮겨지질 않는 망막함에 어쩔 줄을 몰랐었다.

허벅지를 찢러대며, 퇴직 3일 후부터 하얀 도화지 같은 머리를 흔들며 3개월간 전국 방방곡곡으로 뛰었다. 다른 퇴직자들처럼 해외 플랜트 현장 쪽에 몇 번의 추천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정중히 사양했다. 추천, 부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해진 코스를 따르는 것이 더 편한 방법일 수 있으나, 나는 "도전"을 선택했다. 더 힘들 것이라고 예견하면서도,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인생 2막에 대하여 스스로 선전포고를 하였다.

### 가산동에 첫발을 내딛고 시작한 후반기 인생사!

갑자기 대표라는 신분이 되면서, 경제적, 법적 책임도 저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노력의 결과랄까? 회사 생활에서 익힌 정보를 바탕으로 매출, 생산 품목 관리 및 매장 연출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국의 수십만 개가 넘는 동종 유사업소 중 전국 49위, 3,000개가 넘는 해당 업체 중 전국 4위라는 성적을 경영 5년 만에 얻으면서, 나의 나이를 고려하면 무거운 짐을 벗었다.

우리의 폴리미래는, 오늘의 성과와 내일의 비전을 향하여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창출해내고, 또한 그러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 뭉클하고 뿌듯하여 자랑하게 된다.





#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고객만족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함께하는 “(주)이지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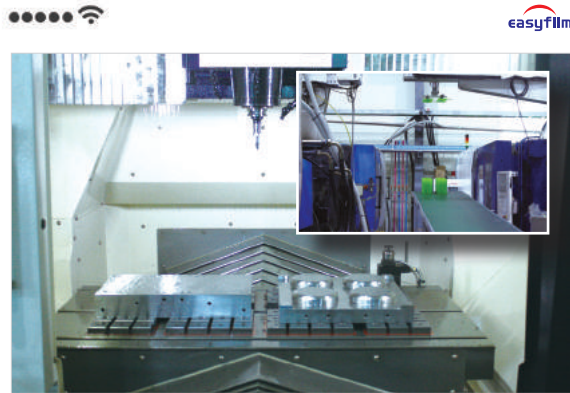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1981년 대동기업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0년간 플라스틱 포장용 사출 제품 생산 외길을 걸어오며 폴리미래의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식품용기로 만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주)이지필름을 소개합니다.

내수영업팀 \_ 임채휘 대리



(주)이지필름은 1981년 대동기업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0년간 플라스틱 포장용 사출 제품 생산 외길을 걸어온 회사다. 밀폐 용기 시장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으로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와 품질개선이 필수라는 신념으로 ‘쿨라라, 쿨맥시, 이지웨어, 황토누름이’ 등의 상표를 앞세워 현재 30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2018년 매출액 100억 달성으로 시장에서 꾸준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근 (주)이지필름은 기존에 익숙하지 않던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로 (주)에코센스라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더욱 공격적인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ISBM(Injection Stretching Blow Molding) 설비 추가 도입으로 제품 다양성 확장을 통해 신규시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지필름만의 경쟁력 \_ #고품질 #개발과 투자

사업 초기 화장품 용기 임가공 경험을 통해 ‘좋은 품질은 고객의 두터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교두보’라는 사실을 깨닫고 품질 제일을 원칙으로 (주)이지필름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단순로운 제품구성과 대형 유통망의 부재는 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였고 이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개발에 과감히 투자한 결과 시장에서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현재 매년 매출의 10% 가량을 신규 몰드(Mold) 제작과 품질개선을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한해 2건 이상의 디자인실용신안을 출원하고 있다. 과감한 투자에 의한 원가상승을 우려하는 주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 동안 쌓아온 사출 몰드(Mold) 설계 및 개선 기술과 자동화 설비 도입은 원가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제품의 다양성과 차별성 \_ #쿨라라 #폴리미래

빠른 시장 변화는 (주)이지필름의 개발 노하우와 맞물려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현재 유통중인 제품의 수는 300가지 이상으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시장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런 개선점의 반영은 시장에서 차별화로 이어졌다. 이는 아직까지 (주)이지필름의 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폴리미래의 Random PP 제품은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용기 품질 안정성 확보에 10년간 큰 보탬이 되어 왔다고 평가해 주었다.



### 유통구조 개선 및 시장확대 \_ #정직과 신뢰 #가성비 #탈렌트 김창숙

이종광 대표이사는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공급한다면 시장에서 외면 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으로 10년간 품질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주)이지필름의 제품은 시장에서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으로 유통사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이중 판매 회전율이 가장 높은 ‘쿨라라’ 제품의 품질은 유지하고 마진율을 최대한 낮춰 시장에 공급했고 이는 ‘(주)이지필름’을 주부들 사이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합리적인 회사라는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창업시절부터 모델로 기용한 탈렌트 김창숙씨의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40~50대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 (주)이지필름의 목표와 방향성 \_ #초심 #포스트코로나

최근 플라스틱 밀폐용기 시장은 1인가구, 맞벌이부부, 노인 세대 증가에 따라 편의성과 간편조리 니즈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코로나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축은 기존 유통구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주)이지필름은 이 또한 새로운 도전 기회로 보고 과감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발 빠른 시장 대처능력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창립부터 지금까지 이종광 대표이사는 매일 현장에서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땀 흘리며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차별화만이 살길”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친환경 제품라인 강화를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 글로벌 PP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폴리미래의 생존 전략



현재 폴리미래는 “Specialty Focus” 전략 즉, 차별화된 비즈니스를 증가시키고 개발을 통한 신규 제품을 확대하는 방식을 최우선으로 채택하여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불러온 PP 시장의 변화에 맞서 폴리미래가 취하고 있는 비전과 차별화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개발팀 \_ 김학상 팀장



## 범용에서 스페셜티로, 체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폴리미래

우리는 지난 2019년 12월 초에 발생하여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전염병으로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하였으나 안면 마스크 및 보호 가운과 같은 전염병과 관련된 위생용품, 테이크아웃 식품 용기, 백색 가전 제품과 같은 특정 시장에서는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폴리프로필렌(PP) 수요 증가에 새로운 양상을 가져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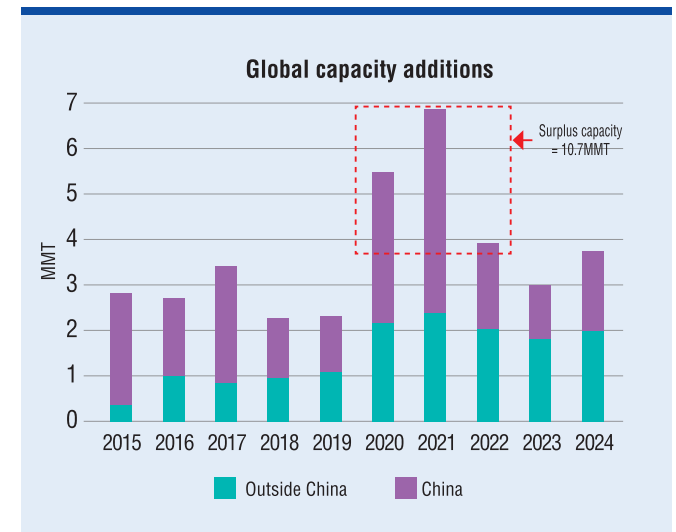
2021년의 PP 시장은 중국이 PDH(Propane Dehydrogenation) 신증설을 계속하고 있고 중동, 아시아 각국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에서만 연간 총 330만 톤의 신규 PP 용량이 증설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약 52%가 가동 중이었으나, 2021년에는 안정적인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율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아시아 총 추가 공급량의 78%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450만 톤의 신규 PP 증설로 PP 공급 증가의 또 다른 정점이 될 것입니다.

PP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지속적인 신규 PP 증설과 더불어 공급을



충당할 자급 소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아시아에서 예정된 연간 580만 톤의 신규 추가 물량을 고려하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아시아 PP 생산업체간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될 전망입니다.

폴리미래는 과거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립적인 기업경쟁을 도모하기보다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기초로 고객과 상호 협력 하에 상생의 경연을 만들어나가는 영업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범용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에 매진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쟁을 이끌 수 있는 제품의 차별화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포기하지 않는 혁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현재 폴리미래의 성공적인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 “Specialty Focus” 전략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폴리미래

이를 위해 폴리미래는 “Specialty Focus” 전략을 최우선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Specialty Focus”는 차별화된 비즈니스를 증가시키고 개발을 통한 신규 제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별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함으로써 고객이 필요한 제품을 적시에 제공하고 고객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시켜 줌으로

써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는 이미 차별화된 생산 설비와 제품 설계, 촉매 적용 기술, 안정된 운전능력, 선진화된 메탈로센 기술 등을 토대로 다양하고 많은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 및 적시에 출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용도 개발로 차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유지해왔습니다.

## 폴리미래를 책임지는 스페셜티 제품군의 대표주자

폴리미래의 대표적인 스페셜티 제품군 중의 하나는 메탈로센 촉매를 적용하여 생산된 메탈로센 제품들로서 고강도 및 고순도를 요구하는 의료용 마스크, 기저귀 및 위생용품의 소재인 부직포 섬유 시장과 자동차 내장재용 LFT 소재나 Flow modifier, 흡음재 등 낮은 TVOC를 요구하는 자동차 내장재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낮은 TVOC에 가장 획기적인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산업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인 자동차 컴파운드에 사용되고 있는 RTPO(Reactor made thermoplastic polyolefin) 제품들도 폴리미래의 스페셜티 제품들입니다. RTPO 제품은 고충격이 요구되는 자동차 범퍼 페시아(Bumper Fascia), 대시보드(Instrument Panel), 도어패널(Door Panel) 등 자동차 컴파운딩(Compounding) 분야에 대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컴파운드 소재에 고충격 특성을 위하여 처방되는 고가의 EPR rubber의 함량을 줄여 줌으로써 자동차 컴파운드의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2021년 폴리미래의 글로벌 PP 시장 공략 다짐

2021년에는 아시아 PP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그 어느 때보다 PP 공급 기업들의 고전이 예상되지만 폴리미래는 우리가 가진 독특한 경쟁적 이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폴리미래의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의 추세를 이해하고 예상하며 개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관된 제품 품질과 서비스 신뢰성 및 고객 친화력을 통해 그동안 쌓아 왔던 높은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News briefing

2021 Spring Vol.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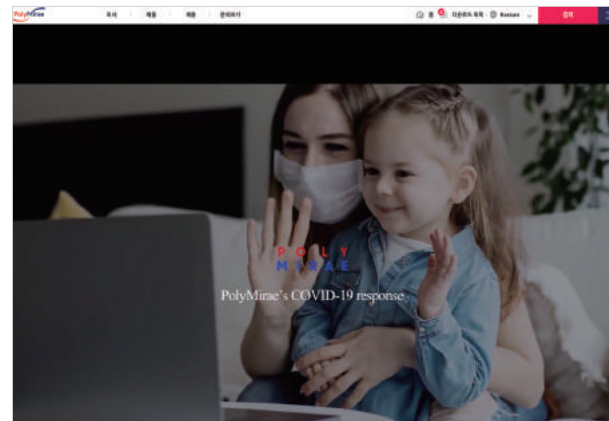


## 무사고 8년 달성

폴리미래는 2020년 9월 6일 24:00부로 무사고 8년이라는 뜻 깊은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 기록은 2020년 6월 무재해 3,000일(10배수) 달성과 더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폴리미래 임직원 모두의 결실이다. 특히, 모기업인 LyondellBasell의 안전 기준은 폴리미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작업을 무사고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한다. 2020년 11월에 진행되었던 평여 공장 대 정비 작업 또한 안전하게 마무리되어 더 높은 기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1년에도 폴리미래 임직원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의 선택 그리고 행동의 중심에 두고 생활할 것이며, 성숙하고 열린 안전문화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장수빈 주임



## 폴리미래 웹사이트 메인 화면 개선

폴리미래는 2020년 10월, 정보 제공의 다양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회사의 사회적 기여를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였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폴리미래가 추구하는 가치 및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폴리미래의 사회적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어 이용자가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정보 접근 편의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였다. 영어 홈페이지만 구축되어 있었던 기존 홈페이지에 중국어로 번역된 페이지를 추가하였다. 중국 고객들의 편의성과 홈페이지 이용을 원활하게 돕기 위함이다. 또한, PP(폴리프로필렌) 제품을 애플리케이션 별로 구분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해당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문의하기 게시판을 신설하여 처음 폴리미래를 접하는 고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로 인해 다양한 고객들로부터 제품, 가격 및 기술 관련 문의를 받고 있다. 제품 문의에서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영업 팀에서는 빠른 피드백을 드리고 있다.

기술팀 명수는 주임



## 울산피피 생산팀과 지원팀 OJT 진행

폴리미래에서는 울산에 건설되고 있는 울산피피 공장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안정적인 운전 및 효율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OJT 교육을 진행하였다.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생산팀 직원 OJT 교육은 각각 2개월씩 평여 공장에서 각 교대 조와 연계 투입되었다. 주요 구성은 기초운전 교육 그리고 운전 절차에 대한 사례교육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긴급 운전 상황에 대한 간접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울산피피 공무팀은 평여공장의 대 정비 기간 동안 2일간의 일정으로 주요 기계 장치들에 대한 관리방안과 정비작업 등에 대한 현장 확인과 교육을 받았다. 울산피피 실험분석팀은 11월 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여수공장과 대전 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분석 방법 및 운영관리에 대한 견학 교육을 마쳤다. 이러한 지원 활동과 교육을 통해 폴리미래와 울산피피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더욱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울산피피의 안정적인 상업 생산이 되도록 HSE 및 스타트업 지원 등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공정팀 이길중 상무



## 2020년 김장김치 봉사활동

폴리미래는 매년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시설 물품 후원, 벽화 그리기, 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년에는 공장과 본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시와 영등포구 관내의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김장김치를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여수시와 영등포구청에서는 봉사활동이 줄어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에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준 폴리미래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소외계층을 위해 작게나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한 시간이었으며, 폴리미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사·노사협력팀 황상호 과장

# News briefing

2021 Spring Vol.46



## HP465YHP 성공적인 상업판매

폴리미래는 지난 2020년 9월, 멜트블로운 필터 여과 효율 증진과 흡입 저항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Moplen* HP465YHP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기존 필터용 멜트블로운 고객사들은 여과 효율 증진을 위해 추가적인 화학 물질을 처방하고 있었는데, 새로 출시된 제품은 추가적인 화학 물질 처방 없이 여과 효율이 높은 멜트블로운 필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객사 테스트 결과 증명되었다. 또한 마스크용 멜트블로운 고객사들은 고효율의 필터 성능과 더불어 흡입 저항이 낮은, 즉 숨쉬기 쉬운 필터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Moplen* HP465YHP의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업체들은 *Moplen* HP465YHP를 사용하여 KF94 및 N95 수준의 필터를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KF94 수준 멜트블로운 필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폴리미래는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통해 KF94 마스크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현재 *Moplen* HP465YHP는 마스크용 멜트블로운 시장은 물론 헤파 필터, 공기청정기 필터, 진공 필터 등 높은 여과 효율 수준이 필요한 산업용 멜트블로운 시장에도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폴리미래는 안정적인 공급 능력과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스페셜티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기술팀 명수는 주임

## 평여 공장 대정비 작업 완료

폴리미래 평여 공장은 2020년 10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3일간의 정기 보수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기간에 법적 정기검사 설비에 대한 점검과 안전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공장 화재 시에 대비한 기존의 자동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CCTV와 연동되는 원격제어 소방수 살포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신속하게 초동대처하고 원격으로 제어함으로써 화재 진압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평여 공장에 원격제어 소방수 살포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폴리미래 모든 공장(line 1~4)에 원격제어 소방수 살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조정동 건물 내 Rack room, HVAC room, MCC room에 CO2 소화 시스템을 할로겐 화합물(청정) 소화 시스템으로 변경함으로써 소화약제 방출 시 질식을 예방하여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폴리미래는 화재 시 설비보호는 물론 인명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목적에 따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CUI(Corrosion Under Insulation) 배관 교체와 전력사용 효율화를 위한 축전기(Capacitor) 설치 및 노후 전기설비 교체를 진행하여 최신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부합하도록 HSE 설비 강화와 공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다. 과거와 다르게 23일간이라는 장기 보수기간과 코로나19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생산팀을 비롯한 모든 관련 부서의 철저한 계획과 안전관리가 뒤 받침 되었다. 결과적으로 기간 내 완벽히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공장의 안정화를 한 등급 더 올리는 정기보수 작업이 되었다.

생산3팀 박종영 팀장

## 생산2팀(용성 공장) SMS A 등급 획득

2020년 가스안전공사 주관으로 시행된 용성 공장 SMS(안전관리시스템) 심사에서 2019년 여천공장 'A' 등급 획득에 이어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하여 우리 회사의 안전 수준을 대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SMS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기관(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각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및 운영 정도를 4년마다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된 등급에 따라 차등관리를 시행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이는 [A/B/C]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관리하고 있다.

SMS의 'A' 등급은 최상위 등급으로 평가대상 업체의 10~20%에만 부여되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성취는 그동안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회사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지속해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행해 온 결과다.

안전환경팀 박철 과장

## PSM P 등급 획득

2020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된 공정안전보고서(PSM) 등급심사에서 심사 결과 PSM 최고 등급인 P 등급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PSM 등급심사 이후 2번째로 받는 P 등급이며, 2020년 P 등급의 경우 여수산업단지 및 광양경제특구 소재의 PSM 대상 사업장 중 상위 2% 업체에게만 부여된 등급이다. 이는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가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안전환경보건 강화 노력의 결과이기에 더욱 가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 등급심사 제도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PSM 12대 요소 준수 여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다양한 투자와 개선 활동 등을 평가하여 4년마다 P, S, M-, M+ 등급으로 차등 관리하고 우수업체를 선별하는 제도이다.

이번 결과는 회사가 안전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 활동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우수 업체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P등급 달성을 계기로 더욱 실용적이고 시스템화된 HSE시스템을 운영하여 안전보건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정준호 대리



# News briefing

2021 Spring Vol.46



## Basell Asia Pacific(BAP)과의 울산피피 상업 판매를 위한 온라인 미팅 개최

2021년 상반기에 폴리프로필렌 상업 생산이 예정된 울산피피의 성공적인 해외 판매를 위하여, 폴리미래는 2020년 9월 25일 BAP와 온라인 미팅을 진행하였다.

폴리미래 시장개발팀의 주관하에 진행된 미팅은 BAP의 각 마케팅 매니저들과 타깃 시장 상황 및 PP 수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해당 미팅을 통해 울산피피의 판매 가능한 해외 시장에 대한 리뷰, 제품 그룹 및 판매 가능 물량과 현재 형성된 시장 프리미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BAP의 각 마케팅 매니저의 시장조사(섬유, 컴파운드용 PP, 사출, 파이프 등) 자료는 울산피피 생산 제품 선정에 대한 기초 역할을 하였다.

이번 울산피피 상업 판매를 위한 회의를 시작으로 BAP와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밀접한 업무 협조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울산피피의 적절한 생산 제품 선정과 판매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2021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울산피피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도약을 기대해 본다.

시장개발팀 김학상 팀장

## 인사동정

### 임원승진

2021. 1. 1부  
상무보/부공장장 이길중

### 신설

2021. 1. 1부  
업무혁신팀  
하대봉, 고종현, 서성오

### 입사

2020. 10. 1부  
인사노사협력팀 박민영

2020. 10. 28부  
인사노사협력팀 유민지

2020. 11. 1부  
인사노사협력팀 장유나

2020. 11. 10부  
인사노사협력팀 김현익

2021. 1. 6부  
물류관리팀 김정호

2021. 1. 18부  
박준상

### 전적/파견

2020. 9. 1부  
생산3팀 박성호(전적)

### 부서/보직변경

2020. 10. 1부  
내수영업팀 성상훈

2020. 11. 1부  
물류관리팀 박찬형

2020. 12. 7부  
내수영업팀 박민영  
내수영업팀 엄기철  
물류관리팀 신준식  
사업자산관리팀 박정희  
기술팀 나형식

2021. 1. 1부  
생산3팀 오상록  
생산팀 황호인  
공정팀 이동준

2021. 1. 18부  
인사노사협력팀 유지연  
사업자산관리팀 유민지

2021. 2. 1부  
시장개발팀 강은혜

2021. 2. 15부  
공정팀 정태호

### 정년퇴직

2020. 12. 31부  
김희성, 임종술, 정동석



교육컨설팅회사 나우잉 \_ 제갈현열 대표

**인간은 소모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사람은 소모품이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야 할 사물이 사랑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져 버린 시대이니까. 그 시대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살아 가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동안 컨설팅을 하며, 경제 책을 집필하며, 또한 강연을 다니며 나는 다양한 회사를 직·간접 적으로 경험했다. 그 경험의 과정에서 직원이 회사에 의해 소모되는 수많은 순간을 목격했다. 힘과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인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때론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치는 잃은 채 그저 회사에 끌려다니며 자신의 삶이 소모되고 있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회사에 눈치를 보지 않았고, 회사에 끌려 다니지 않았다. 늘 당당했으며 자신의 가치를 회사라는 틀 안에서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전자는 '회사가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후자는 '회사를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전자는 다수였고 후자는 소수였다. 지면을 빌려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소수에 대한 이야기다. 좀 더 정확히는 이 회사의 모든 이들이 이 소수의 세계로 넘어오길 바라는 이야기다.

**명함에 숨지 않는 사람에게 회사는 미래를 배팅했다**

회사가 사용하는 사람과 회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차이를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명함 아래에 있는 사람과 명함 위에 있는 사람. 회사가 사용하는 사람은 명함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항상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회사라는 이름으로 숨기려 한다. 어느 전자, 어느 상사, 어느 기업 등, 자신의 가치를 말하기 이전에 회사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유독 이름 있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다. 스스로 하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은 것도, 올라서고 싶은 것도 이런 이들에게 없다.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최고의 업적이 입사인양 명함을 건네며 상대와 자신을 회사의 크기만으로 견주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명함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쉽지만 미래가 없다. 냉정하게 회사는 회사의 이름보다 낮은 사람을 키워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명함 아래에 존재하는 직원에게 회사는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다. 고마움을 느끼지 않기에 당연히 대우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반면 회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명함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자신이 속한 회사의 크기와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대신 회사에서 자신의 역할에 관심이 있다. 나아가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해 온 정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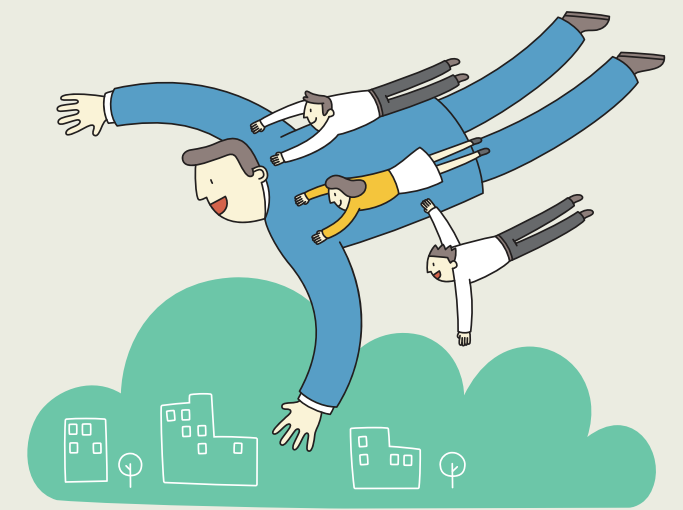
'업글인간'이란 이제껏 생각해온 자기 계발과는 결이 다른 성장이다. 성장의 방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진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땀 흘리는지 고민해볼 기회이다.

집중한다. 이들은 스스로 목표한 바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로운 일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회사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자신이 해 나가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더욱이 자신의 목표와 성장에 있어 회사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미련없이 회사의 이름을 버릴 준비를 늘 하고 있는 자들이다. 어찌 보면 과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들에게 회사는 오히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더욱 성장하라고, 그 성장을 위해 회사를 마음껏 이용하라고 말이다.

회사는 알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자신의 목적과 성장을 위해 뛰어다닐 때, 이를 이루기 위해 회사를 마음껏 이용하며 올라설 때 그들의 성장은 곧 회사의 이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때문에 회사는 자신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성장을 도와주는 첨병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욱 많은 기회와 대우가 이들에게 제공되고 이는 선순환이 되어 이들의 성장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소모되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어떤 사람도 스스로 명함 아래에서 사는 삶에 만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분명 과거에는 원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삶을 살았어야 했고, 뜻한바 있어 노력했으나 현실에 벽 앞에서 결국 명함 아래에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분명 맹목적인 충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도 있었다. 회사에 충성하고 회사가 시키는 일엔 복종하며 일체의 의심과 반대를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시대가 분명 있었다. 그 시절엔 회사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명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또한 사랑을 받았다.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 이젠 회사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자들이 아닌, 회사를 이용하고, 회사를 활용해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자들을 위한 시대가 열렸다. 과거의 눈으로 봤을 때 '꽤샘한 자들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꽤샘한 자'들의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 명함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회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존재라서 자신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업그레이드, 무엇을 통해 이를 수 있을까? 내가 제안하는 것은 두 가지다.



**자기 계획이 있는 자에게 회사는 곧 최고의 도구임을 기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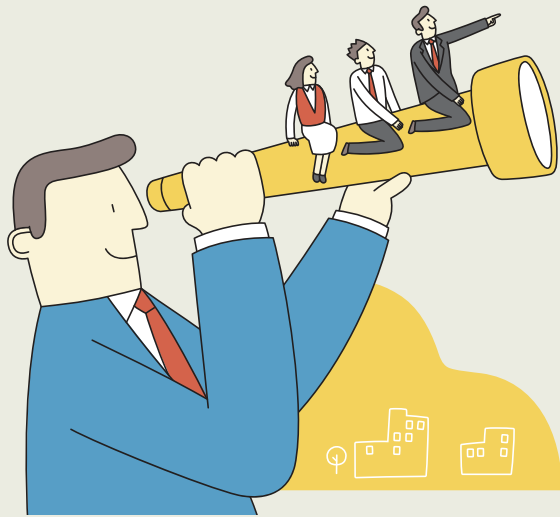
먼저 첫째로 모든 일에 중심을 자신으로 두는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작가라는 직업의 특성상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그 중 성장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큰 공통점 중 하나는 오직 자신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사업에 성공한 창업가도, 회사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아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치는 사람들도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오직 자신을 위해서 행한다고 말했다.

흔히들 직장내 교육에서 말하는 '자기 일처럼 생각하라'는 것과 '자신을 위해 일을 하라'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다. 자신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일에서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한 자기 목적에 일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 그 결정에 따라 모든 것들은 달라진다. 주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시켜서 해야 하는 일이라도 얼마든지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직장을 다녔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나의 직무는 기획이었다. 좋아서 시작했던 직무지만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을 해야 할 때도 있었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납득 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기획을 풀어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 내가 맡은 일이란 그야말로 주어진 일에 불과했고, 그런 일에는 도무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소홀함 없이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일 자체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목표로 두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기획에 관련된 책을 집필하고, 누군가에게 기획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이 회사를 통해 쌓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보니 하기 싫은 기획도,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 해야 하는 기획도 모두 내 성장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었다.





'하기 싫은 기획을 해본 이 경험이 훗날 기획 책의 중요한 소재가 될 것이다' '클라이언트와 강요 같은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대응 경험은 훗날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소재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 작은 마음가짐이 하기 싫은 모든 일들을 기꺼이 할 만한 가치 있는 일들로 변화시켰다. 나를 위해 하는 일이니 스스로 야근을 감수했고, 나를 위한 경험이니 답답함과 억울함도 모두 소중한 배움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때의 경험을 오롯이 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다 보니 결국 나는 기획에 대한 책을 집필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금도 주요 대학의 강단에서, 공사에서, 그리고 대기업에서 기획을 가르치고 있다.

나를 위해 했던 일이니 그 일엔 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따라서 크든 작든 성과가 있었고 이는 당연히 회사의 이익과도 연결됐다.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을 활용하다 보니 과정은 가치 있고 결과는 회사와 스스로 모두에게 만족을 준 것이다. 당신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돌아보길 권한다. 그 일에 혹사라도 자신의 계획이 빠져 있다면 그 계획을 지금부터 추가하길 제안한다. 자기 계획을 위한 수단으로 일을 생각할 때 비로소 그 일은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자들은 결국 명함 위에 서게 된다.

**'명령받는 자'의 시선에만 머물러 있음을 경계하라**

자신을 위해 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다. 직무 수행자의 시선이 아닌 회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병사는 창 끝을 보고, 장수는 전투의 끝을, 그리고 군주는 전쟁의 끝을 본다는 말이 있다. 병사가 눈 앞의 적에만 집중하고, 장수는 한 전투의 승패에 집중하지만 군주는 한 전쟁의 결과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시선을 무엇을 향하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삶의 30% 이상을 할애하는 직장생활,  
매일의 생활 속에 자신을 진정으로 성장시킬  
귀중한 재료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대부분의 직장인은 직무 수행자로서 자신의 일을 바라본다. 그러다 보니 직무에 집중되어 있고, 해당 직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선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 나아가 그 직무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회사의 시선으로 자신의 일을 바라보면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된다. 자신의 하는 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조직에 어떠한 직무든 결국 그것이 향하는 종착역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다.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자신의 직무를 바라보게 되면 그 직무가 회사 성장으로 전달되기까지 이어져 있는 많은 연결고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연결고리들을 모두 이해할 때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직무의 진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년 전 모 대기업 인사팀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총무과에 진짜 인재가 한 명 들어왔으며 내게 한껏 자랑을 했다. 내용은 이랬다.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매 순간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매우 의욕적으로 말이다. 총무과에서 그가 맡은 일은 사내 시설 유지 및 보수에 관련된 일이었다. 성과를 내기 힘든 일이기엔 보통은 큰 의욕을 보이지 않는 직무였다. 반면 그 직원은 남달랐기에 팀장이 물어봤다고 한다. 팀장의 물음에 그 신입은 자신이 열심히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구두약은 검고 사용하려면 늘 손이 더러워지기 일쑤지만, 구두약을 바른 손이 더러워질수록, 구두약이 사용될수록 구두는 빛나는 법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회사라는 구두를 빛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노력할수록, 제가 뛰어다닐수록 회사에 있는 누군가의 업무 효율성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성과로 이어지겠죠. 저는 회사가 더욱 빛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팀의 입장에서는, 나아가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시선을 가진 직원이 무척 고마울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직원이 성과를 내지 못할 리 없다. 성장을 하지 못할 이유 역시 없을 것이다. 그는 신입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회사의 그것과 맞닿아 있었다. 최근 그의 근황을 들었는데 총무과에서 회사의 핵심 부서로 이동했다고 한다. 능력과 태도를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새어 나왔다. 회사의 시선으로 자신의 직무를

바라보면 이처럼 자신의 하는 일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이는 곧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직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할 좋은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회사의 시선으로 일을 바라보면 제안받는 자가 아닌 제안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업무가 회사에 보다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고민의 연결고리를 이어나가다 보면 자기 직무의 어떠한 점을 개선, 보안 혹은 시도하였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회사에 전달하는 행위는 곧 회사에 제안하는 행위가 된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정해진 직무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는 사람을 회사는 언제나 원한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그런 자에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을 통해 회사는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직무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계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다. 회사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직렬로 연결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왜 사서 일을 만드느냐'는 핀잔을 들을 수 있는 행동들이 이제는 회사가 고마워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현재 자신의 일을 스스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이다. 자신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이다.

**당신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길 기대하며...**

다소 길었던 이야기를 요약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일을 자기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주어진 직무를 바라보는 시선을 일개 직원이 아닌 회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회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명함 위에 설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길 희망한다. 그런 존재가 되어 당신의 가치를 한껏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길 소망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이 회사가 그렇게 변화한 당신을 힘껏 안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회사이길 희망한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란 양적으로 평등하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생긴다. 바로 이 질적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꾼다.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5일이란 시간을 회사에 사용해야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30% 이상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다는 뜻이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누군가는 회사일은 뒷전이고 매일 주식창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역할만큼만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들은 안타깝지만 회사에 소모되며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그들을 소모해 남긴 막대한 이익은 그 시간을 자신의 목표를 위해, 동시에 회사의 시선에 맞춰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하지만 언젠간 우리가 만날 날이 온다면 이왕이면 당신이 회사를 맘껏 사용하는 자가 되어 있었으면 한다. 내게 찾아와 내가 어떻게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지, 내 시선이 회사와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지, 이를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한껏 자랑하길 바란다. 남의 자랑을 듣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나이지만, 그 자랑만은 웃으며 맞장구를 칠 준비를 지금부터 나는 하고 있겠다. 업글인간으로 자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까지는 잊어라. 지금부터다.





## 폴리미래의 희망찬 미래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신입사원들 궁금하시죠

지난해 우리 회사에 7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신입사원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떨리는 마음을 안고 2021년을  
맞이한 이들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폴리미래에서 추억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에 마음을 뺏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Spring

마스크를 벗은 채 지어 보인 환한 미소가  
봄처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 때 선물처럼 찾아온 신입사원.  
이들이 있어 모두의 마음이  
다시 새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폴리미래의 값진 자양분으로  
성장하고 있는  
황인성 사원



“폴리미래와 함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유민지입니다!”

유민지 사원 \_ 취업을 준비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 폴리미래 신입사원 소개 글을 작성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취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폴리미래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업무 관련 교육, 전화 영어 등 다채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폴리미래 덕분에 입사 후 업무 적응과 더불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아 종종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마다 질책보다는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님들께 이 글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업무를 맡아 매일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적응하고 숙달되어 선배님들의 과업에 대한 짐을 나누고 보탬이 되는 폴리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께 받았던 도움 이상으로 베푸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사 전에는 취업의 문턱만 넘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사해보니 오히려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입사할 때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채워가는 유민지가 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입사할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한 단계씩 성장하고 싶은  
유민지 사원



“회사의 성장과 함께한 나의 성장기”

황인성 사원 \_ 안녕하세요, 폴리미래 사업자산관리팀 황인성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곧 봄이 성큼 다가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입사 후 두 번째 봄을 폴리미래와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쁜 마음입니다. 입사한 지 일 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을 보며 시간이 빠르게 흘렀음을 느낍니다. 저는 현재 BM팀에서 내수 오더 및 원산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위해서는 필요한 업무이고, 잘못된 오더는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BM팀은 업무상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영업사원분들에게 오더를 받아, 제품 생산 일정 및 업체별 계획된 물량을 고려해서 오더를 진행하다 보니, 팀 내부적으로 항상 많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업무 초반에는 선배님들께 먼저 여쭙보고,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배님들께서 먼저 다가와 알려주신 덕분에 빠르게 팀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영업사원분들께서는 제 미숙함에 대해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저에게 베풀어주신 많은 분의 배려의 자세를 저 또한 배워 폴리미래가 One Winning Team이 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폴리미래는 부족한 막내인 저에게 다양한 기회라는 자양분을 준 특별한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업무의 일부와 원산지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업무적으로 더욱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기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 폴리미래는 마스크 원료를 생산함으로써, 사람들의 일상을 회복시켜주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사하고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처음 출근하던 날이 바로 엇그제 일인 것처럼 생생합니다. 첫 출근을 하며 가졌던 설렘과 초심을 잃지 않으며 회사와 함께 더 큰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지향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미래의 '안전제일,  
Safety First' 문화에 반한  
장수빈 주임



“폴리미래의 'Safety First' 문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장수빈 주임 \_ 안녕하세요, 안전환경팀 신입사원 장수빈 주임입니다. 제가 폴리미래의 직원이 된 지도 6개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좁았던 취업 문이 더욱더 좁게만 느껴질 때, 폴리미래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관한 여러 정보 중 우수한 기업문화를 가졌다는 점이 눈에 띄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시작으로, 최종합격이라는 기쁜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동기들과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은 교육에 관련한 도움뿐만 아니라, 여수 곳곳의 맛집과 명소를 알려주시며 낯선 여수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점을 찾다니며 즐거운 교육 기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수의 첫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과,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준 동기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부서배치 후 새로운 시작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환경안전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폴리미래는 매우 우수한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사한 지금도 '안전제일, Safety First'의 문화를 만들고 실천하는 모습에 '내가 바라던 회사에 들어왔구나'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직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고, 하고 있는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신입사원이지만, 회사의 일원으로서 선배님들이 쌓아온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폴리미래 안에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프로페셔널한 폴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장유나 사원

**“전문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폴리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장유나 사원** \_ 안녕하세요 장유나입니다! 조금 더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폴리미래에 출근하게 된 지 어느덧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폴리미래와 함께한 지난 2020년과 새롭게 시작된 2021년은 저에게 그 어느 해 보다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폴리미래에 첫발을 들었던 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공장 이미지와는 다소 달랐고 다채로운 색감의 친근한 사무실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반겨주시는 팀원분들을 뵙고는 '다른 걱정할 것 없이 열심히 생활하면, 즐거운 회사 생활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의 저의 예상과 같이 업무 분위기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에 세세하게 답변해주시고, 어려운 점은 혼자 알지 말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항상 응원해 주십니다. 그 덕분에 어렵지 않게 적응하고, 소속감을 느끼며 폴리미래에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항상 '나는 과장님처럼 할 수 있을까? 대리님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업무를 하는 동안 늘 자리하고 있을 정도로 폴리미래의 구성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인재라고 느꼈습니다. 열정에는 전문성이 뒤따르며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을 잘하는 인재가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직 인재라고 칭하기엔 많이 부족한 신입사원입니다. 하지만 폴리미래의 일원으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얻은 만큼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업무, 교육 기회를 잘 활용하고 개인적인 역량개발을 꾸준히 하여 폴리미래에 근무하시는 모든 선배님과 같이 저 또한 제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춘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PP 산업의 최강자 폴리미래와 함께 최고의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황정진 주임** \_ 안녕하세요! 2020년 6월에 입사한 생산2팀 황정진 주임입니다. 입사 후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 어느덧 2021년도 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결실을 보고 성취감을 느낀 것이 엇그제 같은데, 입사 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입사 후 3개월간 선배님들께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엔지니어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현재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몸소 공정을 익히고 전보다 한 뼘 더 성장한 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타지 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에 정말 쾌적한 숙소를 회사에서 제공해주어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폴리미래의 세심한 배려에 큰 고마움을 느끼며 여수의 수많은 맛집을 다니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까공이 국밥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하면서 석유화학 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꿈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폴리미래는 그런 저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명실상부 PP 산업의 최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정말 훌륭한 동기들 그리고 뛰어난 선배님들과 함께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저 또한 꾸준히 성장하여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최고의 선배님들과 함께 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는 황정진 주임



폴리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싶은 이학철 주임

**“나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워 만나게 된 폴리미래! 폴리미래의 전문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이학철 주임** \_ 안녕하세요! 폴리미래 생산팀 이학철 주임입니다. 폴리미래에 입사하기 전 167명의 임직원 수를 보았을 때, '공장 운전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그 공장을 운전하는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회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저만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 없는 안전한 기업,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가였습니다. 폴리미래는 이 두 가지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입사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간절한 마음이 앞섰는지 준비한 만큼 면접을 잘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좋은 결과로 폴리미래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하였을 때 인사팀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회사 및 여수 생활에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주신 선배님들 덕분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장님과의 첫 면담에서 “우리 회사의 직원은 부품이 아니다. 개개인의 역량이 소중하며, 그 역량으로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억에 남은 이유는 실제로 폴리미래에 근무하게 되면서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임을 제가 직접 느끼고 경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여 실력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폴리미래가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리미래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다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김권호 주임** \_ 안녕하세요, 지난 2020년 6월 1일 폴리미래에 입사한 생산3팀 김권호 주임입니다. 불과 몇 달 전 취업 준비 중 폴리미래 사보를 정독하며 입사하게 되면 반드시 사보에 자기소개를 쓰겠다고 다짐했던 제가 이렇게 사보를 통해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작년 6월 장교로 전역한 이후 처음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어성적 하나 없이 남들보다 부족한 취업 준비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시간을 쪼개가며 영어성적 및 자격증을 취득하고 플랜트 교육, 생산관리 직무 캠프 등을 수료하여 값진 노력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폴리미래 면접 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여수의 평여공장을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노력과 열정이 잘 전달되어 폴리미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사원들을 챙겨주신 본사 인사팀 직원분들부터 여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황상호 과장님, 바쁘신 업무에도 신입사원 교육을 도맡아 주신 모든 선배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곁에서 늘 많이 알려주시는 교대조 분들에게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며 자부심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이등병과 같은 엔지니어이지만, 선배님들께 많이 배우고 하루하루 성장하며 폴리미래 제품의 품질과 현장 안전에 책임을 다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이 만들어온 꽃길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는 김권호 주임



#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안전환경팀(HSE팀)

급격한 시대변화 속에서 사회가 기업에 요구하는 법적/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과 달리 개인의 인권 그리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더욱 대두되고 있는 것도 확실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내외부적인 사회적 규제에 대한 대응과 직원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는 안전환경팀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의 최전방에 서 있는 폴리미래의 안전환경팀을 소개합니다.





**HSE(Health, Safety, Environment)팀의 구성원을 소개해주세요.**

- 임재영 팀장 : HSE팀 총괄 관리
- 김태수 부장 :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 양정교 부장 : 환경(대기, 수질, 폐기물 등) 관리
- 박 철 과장 : HSEM 관리, 소방 투자 사업, 협력업체/보건(MSDS) 관리
- 박경배 대리 : 현장 안전 관리, 소방 설비 관리, 폐기물 반출 관리
- 정준호 대리 : 시스템(내/외부 감사 및 절차서 관리)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장수빈 주임 : HSE 교육 관리 및 Report 담당

**HSE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 **• 사고 예방 및 법규준수** : HSE팀의 최우선 목표는 사고 예방입니다. 앞으로의 중대 재해는 기업의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장의 불안전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 환경, 보건 관련 법규 검토 및 대응** : 중대 재해 처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강화 등 급변하는 시대 변화 속에서 기업에 요구되는 법적 요구 사항은 크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HSE팀은 이러한 급변하는 정부의 법적 규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폴리미레가 적기에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을 지속, 영위하여 임직원 및 사회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각종 내/외부 점검 대응** : 위와 같이 다양한 법적 규제에 따라 수시로 안전보건(시청 점검,



고용노동부 점검, 가스안전공사 점검 등), 환경(시청, 환경부, NGO 단체 점검 등), 소방(소방서, 화재보험협회 등), 시스템 관련(SO 감사)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HSE팀은 각종 점검의 중점 체크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팀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 HSE 관련 업무 진행 및 관련 팀 지원 : 안전보건, 환경,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해야 하는 주기적 업무의 예산 반영 및 직접 실행(각종 대관 보고서, 보건관리, 협력업체 관리, 교육 실시 등) 또는 관련 팀의 실행(작업 위험성 평가, 안전 검사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HSE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는, 21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HSE 관련 업무 시스템화 및 실질화** : 최근 HSE 관련 키워드는 “실질화”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양의 법규와 그에 따른 다양한 요구 사항을 모두 적기에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HSE팀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법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스마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IT 시스템(HSEM)으로 지원 관리하는 계획을 갖고 진행 중입니다.
- 회사의 안전문화를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까지 레벨업** : 2020년부터 시행 중인 회사의 공식적인 모임에서 안전구호 제창, Easy Safety Rule을 모든 직원이 습관적으로 생활화함으로써 회사의 안전문화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안전은 한 사람이 열 발짝 앞서서서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가 열리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가 열리고,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격의 열매가 열리고,  
성격의 씨앗을 뿌리면 운명의 열매가 열린다.

- 나폴레옹 -



# 재테크 초년생 작은 부자 되기 첫걸음 '이것'부터

제로 금리 시대에 접어든 요즘 주변에서 주식, 비트코인, 펀드 등등의 단어만 들려도 귀가 솔깃한 적은 없으신지요. 열풍처럼 너도나도 재테크에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불안감만 커지는게 현실입니다. 종잣돈이 모이는 시점의 재테크 초년생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것부터 시작하여 내 자산을 똑똑하게 관리합니다.

매일경제 기업팀 \_ 전종현 기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Whoever who has will be given more, and he will have an abundance. Whoever does not have, even what he has will be taken from him)'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9절 구절이다. 흔히 '부익부 빈익빈'을 이 구절에 빗대어 '마태효과(Matthew Effect)'라고 부른다. 마태효과란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현상이다.

요즘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을 보면 그렇다. 돈이 돈을 번다는 것 '부의 법칙'으로 통하기도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처음 이 개념을 만들었다. 돈이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재테크에 있어 돈이 중요한 것이고 다시 말해 '씨드머니(종잣돈)'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재테크는 종잣돈 마련이 첫걸음이다. 종잣돈이 마련돼야 본격적인 재테크를 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종잣돈 만들기는 재테크의 대전제다.

종잣돈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더 그렇다. 월급을 타는 기쁨도 잠시, 돈을 써야 할 곳이 많다.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소비 목록이 점점 많아진다. 돈이 없을 때는 써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지만 막상 돈이 손에 쥐어지면 써야 할 곳이 그렇게도 많아지는지.. 여기에 각종 공제와 세금에 생각보다 월급에서 떼는 것도 많다. 결국 정해진 월급에서 이것저것 떼고 쓰고 남은 돈으로 재테크를 한다면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법하다. '매월 적금 10만원씩 불입해서 어느 세월에 종잣돈 1억원을 모으냐'하는 푸념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며 주식 한번 해볼까 마음먹는 직장인도 있을 법하지만 단언컨대 득보다 실이 많다. 중국에는 버는 돈보다 까먹는 돈이 더 많게 된다는 얘기가.

### 새마을금고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그렇다면 이런 오랜 시간을 들이고 인내하여 어느 정도 모아진 종잣돈을 가지고 재테크 초보자가 작은 부자 되기 대열에 나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과세 혜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밀착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나 신탁 등 상호금융권의 상품도 고려해 볼법하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출자금 제도와 비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면 시중은행 예금금리 수준을 적어도 2배 이상 웃도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새마을금고와 같

은 상호금융권에 출자금(적게는 1만원부터)을 내면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이자소득(14.0%) 등에 대해 총 15.4% 과세하나, 상호금융권 조합원이면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며 농어촌특별세(1.4%)만 댈다. 이런 비과세 혜택을 환산하면 금리를 연 0.5% 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리 0.1% 포인트가 아쉬운 저금리 시대 매력적이다.

예탁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점도 상호금융권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챙기면 실제 누릴 수 있는 이자 혜택은 더 많아진다.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 연말정산 대비 절세상품 가입은 필수

직장인에게 있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다. 소득공제 상품은 과표를 줄여주고 세액공제 상품은 세액을 줄여준다. 고연봉자는 고율과세인 만큼 과표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고 그 외에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저금리 시대 실적배당 상품으로 수익성과 세액공제를 통한 세테크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RP는 직장인 세테크 필수 항목이다.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RP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700만원의 13.2%,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합산해서 700만원이 공제 한도다.

총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도 미리 가입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ISA에는 예적금, 펀드를 담을 수 있고 연내 주식도 편입할 수 있게 된다. ISA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중도인출도 가능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고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원(5년 최대 1억원)이다. 납입 한도는 이월도 되는 만큼 ISA는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세제 혜택과 비과세, 세금 우대 상품 가입은 직장인이라면 채워 놓아야 할 재테크 목록이다.



작은 부자 되기 첫걸음 Tip

### 본격적 재테크에 앞서 읽어보면 도움 되는 도서

	<p>돈 공부는 처음이라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 셀러인 &lt;돈 공부는 처음이라&gt;는 돈을 아는 것과 익숙한 것은 다른 것으로 돈에 대한 상식과 정보를 담은 책이다.</p>		<p>금융지식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재테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금융명탈출을 도와 줄 제대로 된 금융지식을 만날 수 있다.</p>		<p>월급쟁이 부자들 시작부터 다른 월급쟁이 부자들의 수입, 지출, 자산에 대한 경험담과 노하우를 담은 책으로 다양한 실사례를 접할 수 있다.</p>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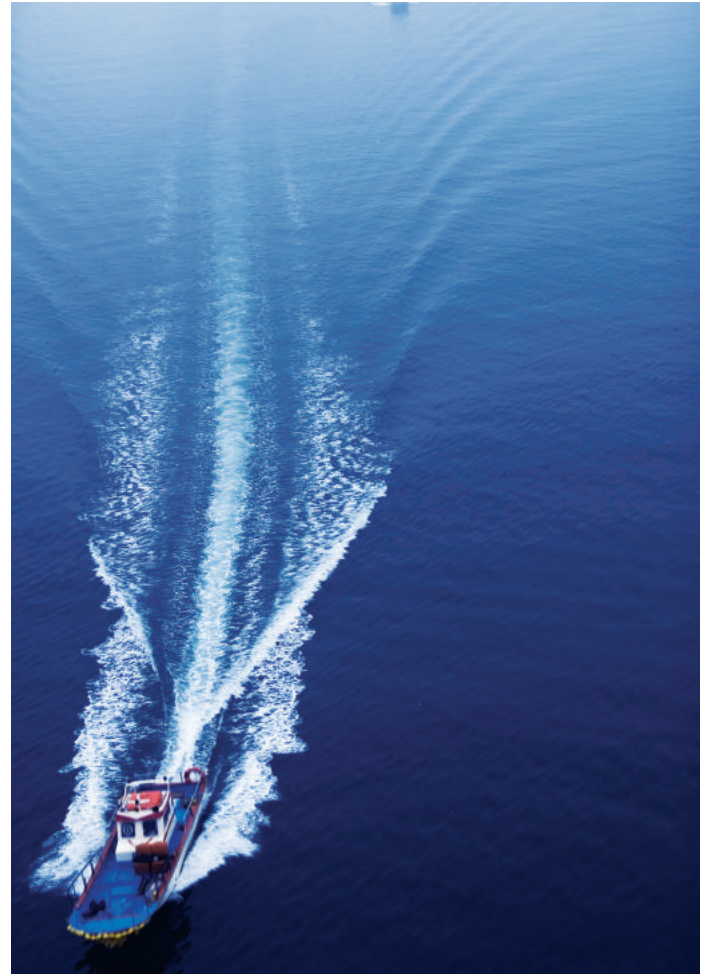


# 그곳에서 모든 것은 섬이 된다

## 거제도 (巨濟島)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이자 역사 속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 우리 곁에 위치한 거제도(巨濟島). 봄 기운이 성큼 다가오면서 거제도는 봄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시기를 잘 맞추면 운 좋게 벚꽃, 유채꽃, 동백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거제도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여행이나 휴가도 마음 놓고 가기 어려운 요즘 가슴 속 깊은 곳까지 뽕 뚫릴 시원한 바다 풍경과 함께 거제도의 보석 같은 장소를 찾아 언택트 여행을 떠나보자.



거제도는 클 거(巨), 건널 제(濟)를 합해 큰 섬이라는 종래의 뜻 이외에 임진왜란 당시 한산섬 등 100여 개가 넘는 많은 섬과 인명을 구한 뜻이 더해져 거제도(巨濟島)로도 불렸다. 또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피난민 구호와 포로수용으로 100만 명 가까운 목숨을 보호하고 지켜냈으니 거제도는 이름 그대로 구제와 은혜의 고장이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인 거제도, 역사 속 수많은 역경을 이겨 낸 거제도, 거제도의 자연 경관을 보고 있노라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그리고 경건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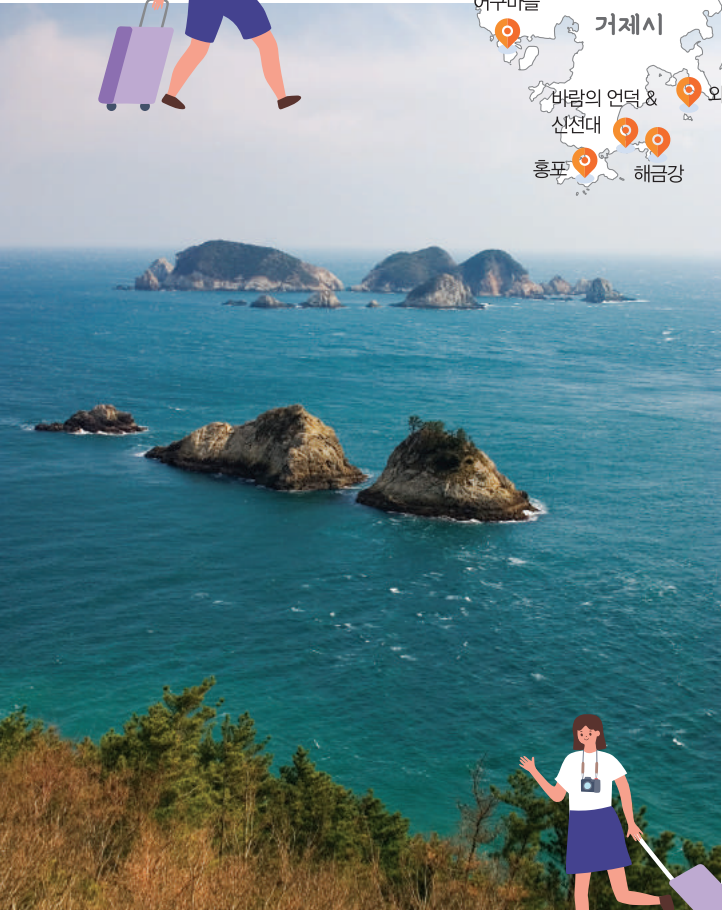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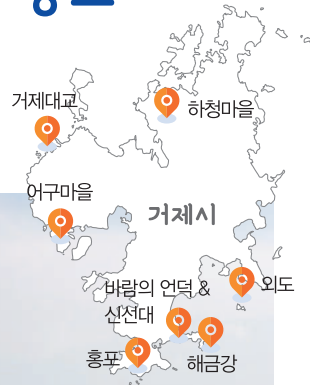
조선 선조 임진년 4월에 무도한 왜구들은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거듭되는 패전과 치욕 속에서 전쟁 발발 24일 만에 첫 승전보가 날아든다. 영웅 이순신 함대가 이끈 거제도 옥포해전 승리가 그것이다. 전쟁의 입구를 내주면서 지나긴 치욕을 감내해야 했던 남도... 그러나 이순신의 출전으로 승리는 열렸고, 전쟁은 닫혔다. 그의 칼이 노래하는 곳에서 남해 바다는 열렸고, 또한 조선은 제자리를 찾았다.

1971년 구 거제대교와 1999년 신 거제대교의 개통으로 거제도는 더 이상 동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굴 양식을 시작한 거제도에서 굴은 이제 청정수역으로 지정된 이곳을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자리하고 있다.





## 거제도 절경은 이곳에서부터! 거제도의 7대 명소



### 홍포 \_ 여기가 진짜 하룡베이

남부면 다포마을에서 여차마을과 무지개마을을 거쳐 저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거제도에서 가장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도로 중 하나다. 특히 홍포쪽 산길을 따라서 약 30분 정도의 드라이브 코스는 매우 환상적이다. 해안도로는 산허리를 끼고 달리는 비포장도로라 좀 덜컹거리긴 하지만 경사는 완만하다. 바다의 풍경에 취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홍포에서 바라보는 대소병도, 매물도, 어여도 등은 한국의 하룡베이라 할 만큼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사진 작가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촬영지다. 비포장 도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도로 언덕으로 올라 바다를 바라보면 아름다운 등대가 있는 매물도, 대소병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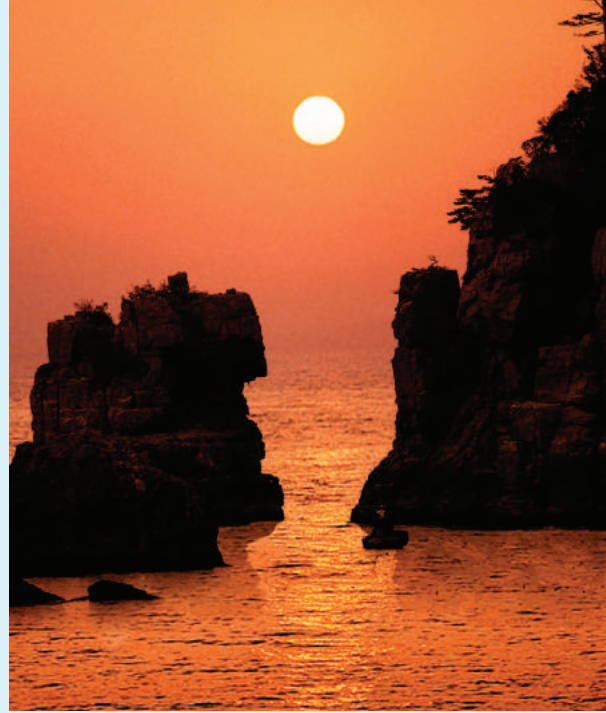
### 거제대교 \_ 사뿐히 즈려 밟고 건너시옵소서

거제도의 모든 명소를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할 다리, 거제대교는 기상 조건에 따라 그때 그때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펼쳐졌을 때는 지나가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며, 밤에 건널 때는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상당히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비 오는 날의 다리는 독특한 물안개와 함께 신비로움을 최고조로 뽐내낸다. 전망대에서 본 신·구 거제대교의 야경은 표현이 어려운 정도로 가히 환상적이다.



### 외도 \_ 거제도의 파라다이스

섬을 가득 메운 진한 꽃 향기, 해금강의 절경과 푸른 바다, 그 상큼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산책 하기에 더 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섬이다. 12개의 비너스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는 서구풍의 비너스 가든과 그 옆 파라다이스 라운지에서 감상하는 남해 바다의 푸른 절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편백 방풍림을 테피스트리로 잘 꾸민 천국의 계단은 연인이 함께 데이트 하기에 좋은 코스로 계단 사이 사이에 놓인 여러 꽃들과 나무들이 진짜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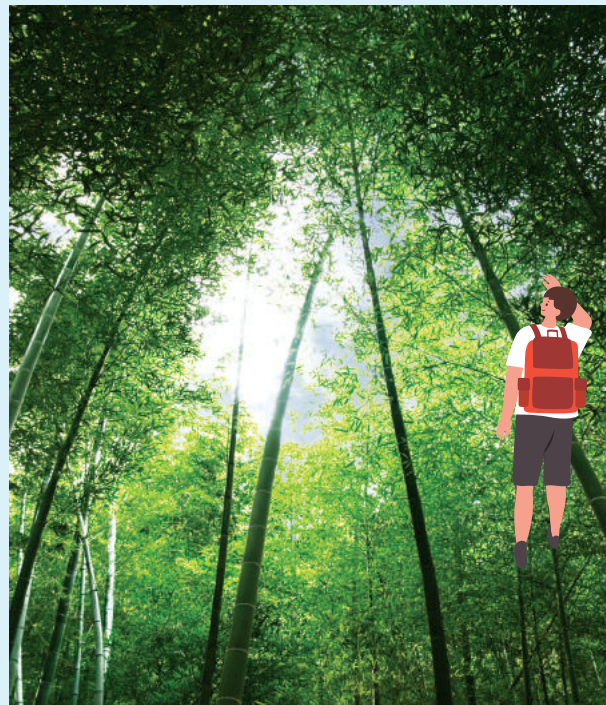


### 해금강 \_ 바다의 금강산

썰물 때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는 십자동굴, 사자바위, 환상적인 일출과 월출로 유명한 일월봉 등이 주요 관광요소다. 거제도 일출의 비경 중 으뜸은 단연해금강 '일출관암'. 해와 달이 이 곳 바위 위에서 뜬다고 하여 '일월관암(日月觀岩)'이라 불린다. 사자바위는 한 마리의 사자가 물속에서 머리를 내밀고 울부짖는 형상인데 입 부분에 서너 개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보일 정도로 실감나는 모습이다.

### 하청마을, 맹종죽테마파크 \_ 아름다움을 담은 대나무 숲

하청마을은 대나무 숲과 죽순마을로 유명한 곳이다. 하청면 일대 아무 곳에서나 맹종 대나무숲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맹종죽의 80%가 거제도에 있다. 테마파크에 들어서면 뻗뻗하게 들어선 대나무 숲 속으로 꺾기를 스치는 죽림들의 속삭임 그리고 그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햇살을 보는 즐거움에 그들의 모습을 핸드폰에 담아 갈 수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 도장포마을 \_ 바람의 언덕 & 신선대

바람이 머무는 '바람의 언덕(망릉잔디 공원)' 과 옛날 신선이 놀고 갔다는 유채꽃이 만발한 '신선대'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도장포 마을. 도장포 마을 선착장에서 나무계단으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 언덕을 올라서면 한가로이 노니는 흑염소, 푸른 잔디, 아름다운 해안 전경과 도장포구를 빠져나가는 배, 갯바위, 연두색 등대 등이 한적한 바다의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는 바람의 언덕은 사진작가들 사이에선 매우 유명한 촬영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예전 드라마 촬영지로 나온 이후에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유채꽃과 함께 탁 트인 거제도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어구마을 \_ 조용히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일몰을 자랑하는 어구마을은 아직까지 관광지나 상업지역으로 알려진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시끄러운 속세에서 벗어나 조용히 일몰을 감상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다. 시끄러운 머리 속 생각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싶을 때 꼭 어구마을을 찾아보길 적극 추천한다. 온통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낙조를 보며 연인과 함께 드라이브하기에 안성맞춤인 해안도로가 있어 승용차를 몰고 돌아보기에 좋은 곳이다. 요즘은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의 핫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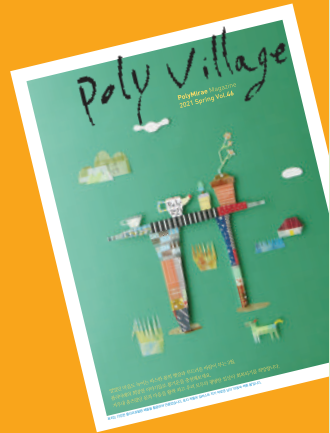
# 다른 그림 찾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두 사진 중 다른 부분이 5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메일(jy.yu@polymirae.com)로 응모해 주세요. 주제를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 시 반드시 이름, 상품을 배송 받으실 주소를 기재 바랍니다.



## Moplen HP461X, HP461Y, HP465Y, HP465YHP

폴리미래의 멜트블로운 PP 제품은 전 세계 멜트블로운 시장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리미래의 펠렛 멜트블로운 PP인 “Moplen HP461X, HP461Y, HP465Y, HP465YHP”는 멜트블로운 가공 시 발생하는 품과 플라이를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Moplen HP465YHP는 필터 성능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 통권 45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 ▶ 당첨자

서지우(서영훈 사우 자녀), 김지영(김남균 사우 자녀)